



食客: 김치전쟁



주유소 습격사건2

속편 영화 몰려온다

속편 전쟁이 시작됐다. 화제를 모았던 한국영화들이 잇따라 속편을 제작, 눈길을 끌고 있다. 허영만 작가의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한 '食客'의 속편인 '食客: 김치 전쟁'은 극장가 최대 대목 중 하나인 2010년 구정 프로로 관객들을 만난다. 만화로 이미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食客'은 지난 2007년 개봉한 첫편이 3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 속편 제작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속편은 광주김치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는 광주시가 3억원의 제작비를 지원, 눈길을 끈다. '食客: 김치전쟁'은 한국인의 정서가 깃든 진정한 한국의 맛을 찾아 광주를 비롯, 전국을 무대로 약 3개월간 촬영을 진행했다. '食客: 김치전쟁'은 전통있는 음식점 춘향각을 둘러싸고 세계적 셰프 장은과 그녀에게 도전하는 성찬의 김치대결이 펼쳐지는 영화로 100여가지가 넘는 김치가 등장한다. 여주인공 장은 역에는 김정은이 출연하며 영화

'食客: 김치전쟁' '주유소...' 내년 초 잇따라 개봉 '괴물' '각설탕'도 구상중

'마더' 등을 통해 충무로가 사랑하는 배우로 떠오른 진구가 성찬역을 맡았다. 신인 백동훈 감독의 데뷔작이다. 1999년 250만 관객을 사로잡았던 '주유소 습격사건' 역시 속편이 완성돼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다. 유지태·유오성·강성진·박영규 등이 출연했던 '주유소 습격사건'은 개봉 당시 기존의 코미디 영화와는 차별성을 두는 코믹 포인트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김상진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은 '주유소 습격사건 2'는 전편에서 건달들에게 주유소를 습격당했던 박영규가 절치부심 끝에 반격에 나선다는 내용을 그린 영화로 내년 1월 개봉 예정이다.

드라마에서 주로 활동했던 지현우가 터프한 남자 로 변신하며 조한선·문원준·정재훈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1천 300만명의 관객들 동원하며 한국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던 봉준호 감독의 '괴물'도 속편을 구상 중이다. 당초 '바보' 등을 쓴 만화가 강풀이 청계천에서 괴물이 등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시나리오를 썼지만 최근 작업을 중단, 다른 작가가 한강과 그 지류에서 괴물들이 출몰하는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 미디어개발청(MDA)이 제작비 60억원을 지원하고, 컴퓨터그래픽을 담당할 매크로그래프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기술 개발비 20억원을 지원받으면서 제작에 탄력이 불고 있다. 2006년 8월 개봉해 130만명의 관객을 모았던 영화 '각설탕'도 속편 제작을 준비 중이다. 1편에서 주인공 임수정과 경주마 천둥이의 우정을 그렸던 '각설탕'은 속편에서 남자기수를 등장시킬 예정, 현재 이범수가



각설탕

주연으로 캐스팅돼 승마 연습 등을 진행 중이다. 그밖에 최민식·한석규가 주연을 맡았고 송강호가 조폭 '조팔'로 출연, '배, 배신이야'를 외치며 강한 인상을 남겼던 송승환 감독의 '남버 3'도 속편 제작을 준비 중이며 유승호 주연의 '마음이', 공포영화로 흥행에 성공했던 '고사' 등도 또 다시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 영화 아바타



'타이타닉' '터미네이터2'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SF물이다. 제작 기간 4년, 제작비 4억 달러에 달하는 블록버스터로 실재 배우의 미묘한 감정 처리까지 CG캐릭터로 모두 표현해내는 이모션 캡처 기술 등 혁신적인 영상미를 구현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 지구는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행성 판도라에서 대체

행성 나비족과 인간의 피할수 없는 한판 대결

'타이타닉' 카메론 감독 SF물 자원을 채굴하기 시작하지만 자원 획득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판도라의 토착민 '나비(Na'vi)'의 외형에 인간의 의식을 주입, 원격 조종이 가능한 새로운 생명체 '아바타'를 탄생시키는 프로그램 개발한다. 하반신이 마비된 전직 해병대원 제이크는 '아바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임무 수행 중 '나비(Na'vi)'의 여전사 '네이티리를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우주의 운명을 결정 짓는 대규모 전투가 시작되는데... 방대한 스케일로 펼쳐지는 인간과 나비족의 전투 장면, 카메론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판도라 행성의 풍경이 압권이다. 샘 워딩턴, 조 셀라나, 시고니 위버 등이 출연한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이제 보청기를 쓰세요. 이젠 보청기를 쓰세요. 이젠 보청기를 쓰세요.

국제보청기

본점: 061-227-9940
 서울점: 061-752-9940
 부산점: 061-262-9280
 충청점: 061-227-9970
 덕산점: 063-851-2422

"우리 지자체는 내가 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지방재정평가 2009

전국 모든 지자체의 재정상태 평가 결과의 순위가 최초로 공개됩니다.